미국 사이버보험 시장의 최신 동향

이소양 연구원

글로벌 보험중개기업인 Marsh에 따르면 2014년 미국 사이버보험 시장은 사이버 리스크[1] 증대로 인한 미국 기업의 사이버보험 가입이 증가하면서 크게 성장함.

- 2014년 Home Depot, JP Morgan Chase, Sony 등의 미국 대형 기업들에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고객정보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에 따른 기업의 경제적 손실이 증가하고 있음.
- 미국 기업들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이버보험에 가입하게 됐으며 2014년 미국 기업의 사이버보험 가입 증가율은 32%를 기록하고 사이버보험 가입률은 2013년 13%에서 16%로 상승함.[2]
  - 미국 손해보험회사의 일반배상책임보험이 사이버 공격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사이버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음.
- 2014년 미국 사이버보험 시장 규모가 2013년 10억 달러에서 130% 증가한 23억 달러로 크게 확대된 것으로 추산됨.

미국 의료기관의 경우 취약한 사이버 보안 수준으로 사이버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았으며 호텔과 도박 기업은 경제적 손실 우려로 사이버보험의 가입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3]

- 2014년 의료기관의 사이버보험 가입률은 5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교육기관(32%), 호텔과 도박 기업(26%), 서비스 기업(22%), 금융기관(21%), 공공서비스 기업(21%), 유통 기업(18%), 통신, 미디어와 IT 기업(12%), 제조 기업(8%)의 순으로 나타남.

---

1) 사이버 리스크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유모형의 발생 가능한 손실로, 기업이 보유하는 개인의 신원, 금융 및 보험정보 등 민감한 자료의 유출, 도난, 그리고 이와 유사한 행위로 인한 정보의 손실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2) 2011년 일본 Sony는 사이버 공격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로 미국 손해보험회사에게 보상을 요청했으나 2014년 뉴욕 주법원은 당시 Sony가 가입한 일반배상책임보험이 사이버 공격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함. 미국 손해보험회사는 미국 뉴욕 주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일반배상책임보험이 사이버 공격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지 않기로 명확히 규정함.

3) 가입 증가율은 2013년 대비 2014년 사이버보험에 가입한 미국 기업의 비중 변화를 의미하며 가입률은 미국 기업의 사이버보험 가입 비중을 의미함.

  - Windows XP는 2013년부터 보안 업데이트가 중단됐으나 미국 의료기관에서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가장 침입하기 쉬운 대상임.
- 2014년 호텔과 도박 기업의 사이버보험 가입 증가율은 6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교육기관(58%), 공공서비스 기업(47%), 유통 기업(43%), 제조 기업(35%), 서비스 기업(27%), 금융기관(18%), 통신, 미디어와 IT 기업(8%), 의료기관(7%)의 순으로 나타남.
  -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경우 호텔과 도박 기업은 영업활동 중단, 회사 이미지 훼손, 고객 감소 등의 경제적 손실이 매우 커서 이를 흡수하기 위해서 사이버보험에 많이 가입하게 됨.

한편, 미국 기업이 가입한 사이버보험의 평균 보상한도는 사이버 리스크 증대로 크게 상승함.

- 2014년 미국 기업들이 가입한 사이버보험의 평균 보상한도는 1,280만 달러로 2013년 1,110만 달러보다 170만 달러 증가했으며 그 중에서 금융기관이 가입한 사이버보험의 평균 보상한도는 2,350만 달러로 2013년 1,970만 달러보다 380만 달러 증가함.
- 특히, 영업이익이 10억 달러를 초과한 미국 기업들의 경우 사이버보험의 평균 보상한도가 2013년 2,780만 달러에서 2014년 3,410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으며 그 중에서 금융기관의 사이버보험 평균 보상한도가 2013년 5,350만 달러에서 2014년 5,700만 달러로 대폭 늘어남.

전문가들은 사이버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지만 미국 기업의 사이버 리스크 관리 역량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이에 따라 사이버보험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독일 보험금융회사인 Allianz에 따르면 2015년 미국에 사이버 리스크의 중요도 순위가 2014년 5위에서 3위로 상승했으나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이해 부족과 사이버 리스크 손실에 대한 과소평가로 미국 기업들의 사이버 리스크 관리 역량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경제적 손실을 흡수하기 위해서 사이버보험 가입을 통해 사후 손실 흡수 능력을 확충하고 있다고 지적되며 사이버보험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사이버보험 전문 분석 기업인 Advisen는 미국 사이버보험 시장의 잠재 가치가 최대 5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음.
- 한편, 미국 기업들은 데이터 모니터링 수단 및 접속 방식 개선 등의 방법을 통해 자사의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하며 정부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 사이버 리스크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됨.

(Marsh, Allianz, Advisen 등)